

'92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세종문화회관서 4천명 모여 결의다져

금탑산업훈장- (주)코오롱 연간 35억원씩 절약효과 거둬

에너지절약의 活性化를 다짐하는 '92 에너지절약 촉진대회'가 지난 11월 1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盧泰愚대통령도 참석할만큼 에너지의 효율향상 문제가 중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열린 이 대회는 陳 稔 동력자원부장관과 각 국영기업체 및 에너지관련기관 대표 그리고 산업계 대표 및 각계의 에너지 관계자가 세종문화회관을 꽉 메운 가운데 열기를 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盧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소비증가율은 세계제1위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현상을 되풀이 해왔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올해를 「에너지節約元年」으로 정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만큼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는 그동안 에너지절약에 큰 업적을 쌓은 산업체들

을 포상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절약의식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금탑산업훈

법을 새로 개발하고 나이론 추출공법도 개선하는 등 지난 2년동안 에너지절약 부문에 123억원을 투자, 연간 35억원의



〈'92 에너지 절약촉진대회(節約促進大會)에서 盧대통령이 有功者들을 포상했다.〉

장에 (주) 코오롱, 銀塔산업훈장 中央개발(주), 銅塔산업훈장 일신산업(주)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鐵塔 (주) LG유통, 錫塔 부산방직공업(주)가 받았다. (주)코오롱은 원료생산 공정의 시공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산업표창 4명, 대통령표창14명, 국무총리표창16명, 동력자원부장관표창 59명, 47명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았다.

반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WEC Energy Dictionary 1992」는 WEC 산하 「에너지 용어 사전위원회」가 1988년부터 1992년에 걸쳐 앞서 1986년에 발간한 바 있는 「Energy Terminology」를 기초로 하여 보완 편찬 발간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것은 'District Heating' 과 'Units' 부문을 추가로 포함시키는등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Energy Dictionary」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이 에너지사전은 에너지관련 일반적 용어해설에서 부터 환경분야에 이르는 용어중 약2,000개를 정리·수록하였으며, 이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집필·

감수한 것이다.

이 두가지 자료는 현재 에너지협의회에 약간의 여분이 있어 필요시 요청하면 입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에너지공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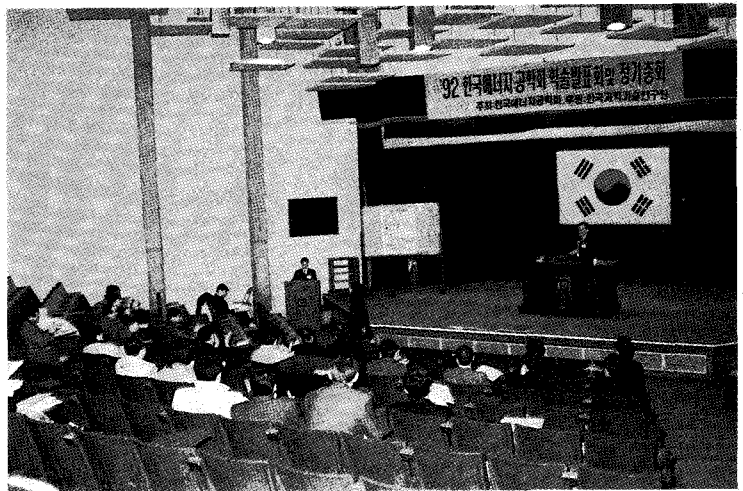
'92 학술발표회, 정기총회 각분과별로 진지한 토론의 마당

사단법인 韓國에너지 工學會의 1992년도 학술발표회와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7일 서울 흥능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Johnson)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에너지공학회는 지난 5월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지 반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8월에 창립기념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에 두번째의 학술발표회를 이번에 열게 된 것이며 아울러 정기총회도 개최하였다.

이날 아침 9시에 KIST 존슨강당에 모인 회원들은 학술발표회의 순서에 참

가하여 우선 "오늘 7개분야에서 총25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될만큼 에너지공학회가 짧은 시일안에 틀을 잡은 것은 고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존슨」강당에서 한국에너지공학회 '92년도 학술발표회와 정기총회가 열렸다.〉

적인 일"이라고 밝힌 鄭根模회장의 개회사를 들었다.

이어서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정욱院長의 환영사와 ② WEC 15차 마드리드 총회에 다녀온 소감과 세계에너지 정세를 감안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밝힌 한전 安秉華사장(에너지協회장)의 초청강연을 들은 회원들은 ③ 환경보전을 위한 自然에너지 冷暖房의 신기술 주제로 열린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吳正茂소장의 특별강연을 주의깊게 들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국제에너지재단(IEF : International Energy Foundation)과 공동주최로 에너지분야의 국제학술대회인 ENERGETEX '93(제5회국제에너지학술대회/The 5th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을 1993년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급변 개최되는 ENERGETEX '93은 1982년 캐나다에서 1차대회(ENERGETEX '82)가 열린 이래 이미 4차에 걸쳐 개최된바 있고 에너지 전분야의 과학기술정보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NERGETEX '93의 주제는 「에너지 : 새로운 도약의 길」로써 "미래를 위한 전통 "에너지 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및

ENERGETEX '93 제5회 국제에너지학술대회 열릴예정 '93대전EXPO와 동시개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또한 발표될 논문의 분야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및 청정기술, 환경보전기술 및 폐기물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정책 및 경제분야에서 5개의 대주제로 원자력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 전분야를 포함한다.

이 ENERGETEX '93은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환경처 및 대전세계박람회 조

직위원회가 특별후원하고 국내외의 유수기관 및 학회가 공동 후원하는 학술대회이다.

이 대회는 1993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학술대회 및 1일의 대전세계박람회 및 大德연구단지 탐방등 5일간에 걸쳐서 열리는데 18日~21日까지 4일간의 학술대회는 서울 잠실소재의 호텔 롯데월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60여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 200여편의 논

에너지계의 미래 조명

이 회의는 바로 이어서 제1·2회의장(존슨강당과 KIST 제4 회의실)으로 나누어 7개분야에서 25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을 벌이는 형식을 갖춘 학술발표회에 들어갔다.

제1회의장에서는 ① 에너지정책·경제분과 ② 전기에너지분과 ③ 新再生에너지분과의 학술발표가 제2회의실에서는 ④ 에너지절약분과 ⑤ 原子力에너지분과 ⑥ 석유 및 가스 에너지분과 ⑦ 석탄에너지분과로 나누어 오후5시반까지 하루종일 지칠줄 모르는 연구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분과별 학술발표회에는 신상길(에너지경제연구원), 윤맹현(한국전력공사), 박이동(성균관대학교), 신희성(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김성년(한국원자력연구소), 김호경(한국가스공사), 손재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각각 해당분과 발표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분과별 학술발표회는 ①에서 에너지 절약정책 방향등 3개논문 ②에서 초전

문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전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됨으로써 '93 대전 EXPO의 위상강화 및 국제적 홍보에도 일조를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주최기관인 韓國에너지技術研究所는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에너지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

도 자석을 이용한 전자유체(MHD)추진등 6개논문 ③에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분극현상연구등 4개논문 ④에서 유리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폐열회수에 관한 연구등 2개논문 ⑤에서 방사선 영향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환경연구등 3개논문 ⑥에서 장기에너지정책의 결정요소등 3개논문 ⑦에서 Analyses of Pasir Coals for Use in Utility Boilers등 4개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발표분야나 내용에서 보듯이 에너지 분야에 걸쳐 훌륭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고무적인 현상을 연출해낸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발표회와 토론을 끝마치고 92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의 결산과 내년도의 공학회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회원들은 총회를 끝내고 내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무국이 마련한 리셉션에 참가하여 그동안의 연구경위와 에너지의 장래문제 그리고 회원상호간의 신변사등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그런데 이날 하루종일 계속된 공학회 <세계 각국에 발송된 「ENERGEX '93」의 초청장 표지. 국내에너지 관련기관에도 발송되었다>

할 수 있는 ENERGEX '93에 국내 에너지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NERGEX '93 행사를 위한 사무국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의 학술발표회와 총회에 참가하고 나서 참석자들은 이제까지 이와같은 에너지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조직화된 학술모임이 없었던 점을 아쉬워하고 에너지공학회의 임원과 회원들이 합심하여 이러한 종합적 모임이 뜻있게 마련된다면 정책당국자, 에너지계, 에너지學徒, 일반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提高)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의견을 많이 밝혔다.

FIRST ANNOUNCEMENT

THE 5TH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18-22 OCTOBER 1993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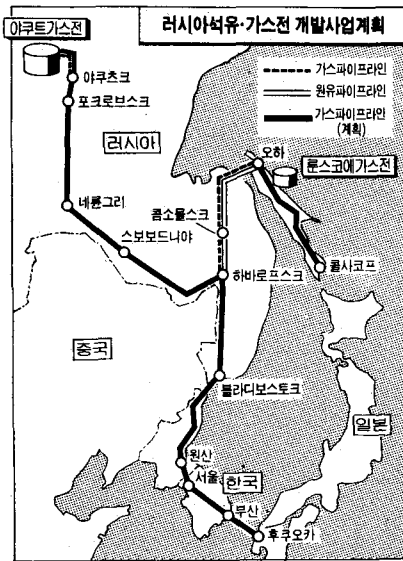
The ENERGEX '93
wi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TAEJON EXPO '93



HOSTED B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INTERNATIONAL ENERGY FOUNDATION

CALL FOR PAPERS

ENERGEX '93 사무국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305-343 대덕연구단지 사서함 77호
Tel : (042) 861-6230, FAX : (042) 861-6231



사할린 가스田 개발참여 매장량 확인 사업성 높아 「야쿠트」가스田사업, 내년 타당성 조사

은 그동안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이 타당성조사를 벌인 결과 3천5백억m²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내년초 개발사업권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가스田은 정밀조사를 통해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중 가장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효성, 삼환 등 7~8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동자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정부는 엘친대통령의 방한기간중인 지난 11월 韓·러 에너지장관회담을 갖고 우리기업들이 사할린 가스田개발사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양국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 야쿠트가스田개발사업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야쿠트가스田사업은 매장량 8천2백 50억m²로 추정되는 시베리아 가스田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러시아 남·북한 일본을 연결하는 5천km의 송유관을 통해 수송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대우, 유개공 등 9개국내업체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에서 5백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비중 50% 정도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국일보).

러시아 동부시베리아의 야쿠트가스田에 이어 사할린의 대규모 해상가스田개발사업에 국내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동자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정부는 엘친러시아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사할린 북동부 대륙붕지역에 위치한 룬스코에가스田 개발사업에 국내업체의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룬스코에가스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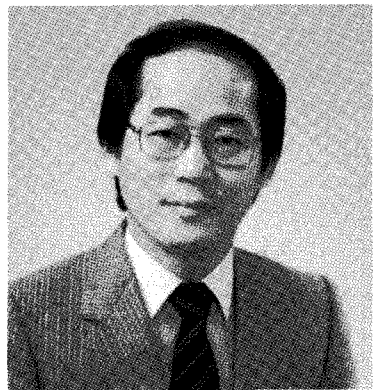
에너지 경제연구, 李會晟원장 IPCC 공동의장으로 선출

우리나라는 지난 11월9일부터 13일까지 「짐바브웨」하라레에서 개최된 제8차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 :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李會晟원장이 선진국대표인 캐나다와 함께 개도국대표로 제3분과위원회의 공동의장국에 피선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민주당의 집권으로 에너지 환경정책의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IPCC의장국 진출에 따

라 앞으로 기후협약 개정 및 부속의정서 협상에 대한 정세파악이나 입장반영 등에서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3개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경제적 평가 및 대응전략 개발)의 장국에 피선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에너지, 환경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있다.



〈IPCC공동의장, 李會晟회장〉

亞洲大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研究棟 기공

총건평 547평
5개연구실과 강의실
및 세미나실 등 갖춰



〈에너지 시스템研究棟기공식. 陳稔동자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부지원연구센터로 적극 育成

지난 12月8日 水原에 있는 亞洲대학 교에서 「에너지 시스템 연구센터」가 기공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부에서 陳稔동력 자원부장관이 참석했으며 金俊燁아주대 이사장 그리고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鄭根謨소장 등 내외귀빈과 많은 에너지계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기공한 亞洲대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는 1987년 아주대 에너지문제 연구소로 발족하여 鄭根謨석좌교수가 초대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88년6월 이것을 계기로 국내최초로 대학원 에너지학과가 개설되었다.

그후 지구환경보전 문제와 결하여 에너지문제가 중요한 세계문제로 떠오르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에너지의 합리적이용과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어 1991년11월 이러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 연구센터를 동력자원부 지원 연구소로 선정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92년5월에는 종래의 에너지문제 연구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에너지시스템 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날 완전한 자리를 잡기위해 그 研究棟기공식이 베풀어지게 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鄭根謨소장은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현재 우리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찬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훌륭한 研究棟을 갖게 되는 만큼 에너지시스템 연구센터는 學際間的 연구와 産·學·研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급변하는 에너지분야의 기술정보수요와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표명하고 에너지계는 물론 정부와 사회각층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아주대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는 국내에서 한전을 비롯한 주요에너지 관련기업체, 에너지관련대학, 관련연구기관, 고등기술연구소 등과 유대를 맺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英國 Sussex대학 기술정보센터, 미국 과학재단(NSF) 및 공

학교육회(ASEE) 그리고 미국의 Gilbert 및 Commonwealth 기술용역회사, 러시아의 Luteh과학기술연구소 등과 광범위한 유대를 맺어 에너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된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연구동은 대지 600평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총건평 547평으로 단출한 규모에 5개 연구실을 비롯해 교수연구실, 강의실, 세미나실, 운영실 등 에너지연구 및 교육관련시설이 마련된다.

이 연구센터는 동력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재정으로 마련되는 것인데 건축비에 14억2천만원, 연구기자재 구입에 1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통일후 對外에너지 의존 62%

北-석탄자원(한국의 9배), 水力자원 풍부 작년 현재, 한국의 대외 의존율 91%

현시점에서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작년 91.3%에서 62.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동력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무연탄 1백17억t과 남한에는 없는 유연탄 30억t 등 한국의 약 9배에 상당하는 석탄자원이 부존돼 있고 水豊발전소(70만kw)와 金剛山 수력발전소(81만kw), 泰川수력발전소(80만kw) 등 수력자원이 남한보다 풍부해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이처럼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외의존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은 소요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 89년의 경우 북한의 총에너지 소비는 3천8백11만9천 TOE(석유환산)로 남한의 약 47%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산업부문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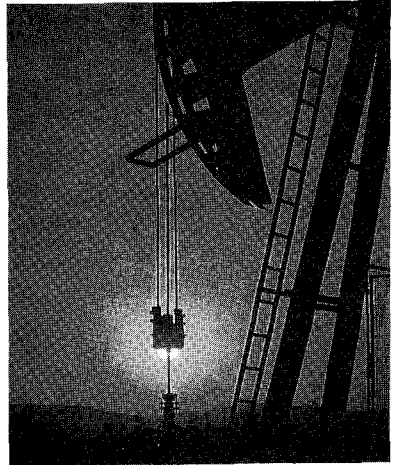
또 북한의 에너지원공급구조는 석탄, 수력, 석유중심의 단순구조로 주종 에너지원인 석탄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13.8%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점의 우리나라 해외의존도는 85.5%로 기록됐다.

이밖에 북한은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IS)과 루마니아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탐사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유정이나 가스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동자부는

밝혔다.

또 수력자원의 경우에도 대용량 수력 발전자원은 거의 개발을 끝냈으며 다만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력 자원은 개발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조선일보)



北方지역 石油개발세미나 시베리아지역 進出위한 意見나뉘

한국석유개발공사(사장 劉旺鍾)는 지난 11月26日 서울 강남구소재 건설회관에서 “北方지역 石油개발 추진전략”세미나를 열었다.

우리나라가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시베리아지역의 자원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 北方자원부존국의 석유개발 투자전략(자원연구소 鄭甲珍 박사) ② 한국기업의 러시아 石油産業 진출방향(변호사 신현주 박사)와 그리고 ③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직무대리「세르게이 아 페드로프」대표의 러시아 석유산업의 현황과 투자조건 등의 주제가 발표되고 각주제마다 바로 토론회를 열어 진지한 논의를 거치고 넘어가 훌륭한 정보교환의 마당을 마련하였다.

최근에 시베리아의 자원개발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이 방면의 권위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임으로써 우리나라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앞으로 지구 환경보전문제와 결부되어 해외자원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10년내에 해외자원개발권을 획득해 놓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선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우리는 많은 에너지資源을 中東 등 상당히 먼거리에 조달하고 있어 거리도 가까운 시베리아 資源개발이 우리나라 에너지源 확보대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